

클러스터 있음에 ... 지역 성장엔진 계속 된다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산단 클러스터 사업**

**산학연 협의체 주축 R&D·기업애로 지원
산단 중심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시도**

조선·자동차·광산업 등 12개 분야 운영

국가 핵심 산업기지로서 산업단지는 수출과 고용 등에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급변해 가는 글로벌 경제에서 기존의 생산 중심 산업단지와 같은 요소투입형 경제체제가 한계에 직면해, 변화를 요구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창조경제 가치를 내걸고 있는 정부로서 산업단지에 혁신형 창조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새로운 동력 클러스터로 무장=산단공은 지난 2005년부터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의 현장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거점(Hub)-연계(Spoke) 형태의 전국 19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활발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사업으로 '산학연 협의체'가 주축이 돼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기업애로 해결, 맞춤형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주요사업은 ▲업종·기술 분야별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발굴 및 해결 활동과 사업화연계 기술 개발사업(R&BD) 추진 과제를 지원하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도출된 산학연 공동 R&D 협력과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산단 R&BD 역량강화사업 ▲코디네이터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에 위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의 네트워크 활동과 공동 협력과제를 지원하는 테마클러스터 구축사업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성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단지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촉진전략은 각 산단별로 뚜렷한 성장세를 실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005년 클러스터 7개 시범 산업단지(구미, 울산, 창원,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의 특화산업 관련 기업 비중은 2004년 63.6%에서 2012년 78.4%로 집적이 가속화 되었으며 클러스터사업 참여기업은 2012년도 기준으로 평균 생산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180억3000만원과 45.6명으로 2006년도와 비교해 연간 2.0%의 증가를 보이고

?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업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역동적인 활동이다.

있다. 평균 수출액도 1400만달러로 연간 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특화융합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매진=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 '특화융합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5개 전략산단(광주첨단, 대불, 여수·광양, 하남일반, 제주)과 진흥산단(전라산단 외 산업단지)을 대상으로 단지별 집적산업과 시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전기전자, 광산업 등 12개 분야에 미니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산업 클러스터 육성 활동은 단연 돋보인다. 현재 광주 광산업이 전국 지역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성장하기까지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혁신클러스터 확대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미니클러스터 회사에 대한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및 육성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광주·전남 클러스터 기술이전 테크페이'를 개최해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제주지역 산단 내 11개 미니클러스터 회장과 기술이전 활성화와 협약식도 가졌다.

윤철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업종별, 기술별 산업생태계를 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입주기업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역할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첫 외국기업 日 알프스 유치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전력 IoT 사업 추진 선언식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ALPS 전기주식회사(이하 알프스)와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 및 전력 IoT 등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에서 한전 조원익 사장은 알프스가 에너지밸리 투자에 협력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알프스가 에너지밸리에 조기 투자실행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한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알프스의 구리야마 도시히로 대표는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알프스가 가진 IoT 및 센서분야 기술력과 한전의 전력 관련 기술을 융합시켜 전력 IoT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한 한전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 사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알프스의 에너지밸리 투자를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다. 한전은 전력

IoT 시장확대를 위해 관련 Test bed 구축,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알프스는 '16년말까지 빛가람 에너지밸리 내에 전력 IoT 분야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산업 분야의 생산 공장 설립 계획 등을 상호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사는 한전과 알프스의 전력 IoT 분야 협력과 에너지밸리 투자 실행 및 안착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합의 방안 실행을 위한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전은 이번 알프스와의 투자실행 공동선언식을 기점으로 에너지밸리 내 해외기업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5급 신입사원 217명 공채

광주·전남 학교 출신 10%

105명 농어촌전형으로 뽑아

한국농어촌공사가 5급 신입사원 217명을 공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임금이피제 도입에 따라 인원을 평년보다 두 배 늘렸고,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채용 인원 중 105명은 농어촌전형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채용한다. 또한, 양성평등 및 이천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남녀 중 한쪽 성별이나, 광주·전남 지역 학교 출신 인제가 해당 분야 모집 인원의 10%에 미달하면 10%까지 추가로 채용한다.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전공, 상식과 인·적성 평가로 이뤄진다. 전형별로 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단계의 점수만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 분야는 행정(61명), 토목(78명), 기계(25명), 전기(24명), 지질(12명), 건축(7명), 전산(6명), 환경(4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초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공사 채용홈페이지(ekr.scou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사업으로 '산학연 협의체'가 주축이 돼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기업애로 해결, 맞춤형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광주 첨단산업단지 전경.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1522·3396

<p>숙박시설</p> <p>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p>	<p>테마파크</p> <p>감정가 15억 담양 / 대지 1073평, 건물 3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층별 입찰가)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11억 9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 고급 펜션 및 주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우리중학교 인근 / 현식당 영업중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상가 매매가 15억 서구 치평동 / 대지 56평 건물 61평 / 우체국인근 / 2층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토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p>상가</p> <p>감정가 6억 5천만 봉선동 / 대지 157평, 건물 78</p>	<p>전원주택</p> <p>감정가 5억 4천만 진도 / 대지 347평 건물 60평</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